光州日報

제1784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8월 22일 (음력 7월 10일) 수요일

전남쌀 물류비 22% 줄인다

31개 RPC 운송 CJ GLS서 전담

올해만 29억 절약…과일·채소 확대

앞으로 전남도내에서 생산된 쌀은 전문 물류기업 한군데가 전담해 중간 판매상이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운송하게 된다.

전남도는 21일 도청에서 박준영 지사와 이덕수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전문 물류기업인 CJ GLS(주) 민병규 대표이사,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연합물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문 물류기업인 CJ GLS는 앞으로 전남도내 RPC에서 나오는 전남 쌀의 타지역 이송을 전담하게 된다.

연합물류는 그동안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농산물의 택배, 화물운송 등을 공동 시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연합물류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당연히 대규모 이송에 따른 운송비 절감이다. 농협 RPC 등이 개별적으로 물류업체와 계약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비용 절감과 함께 전담 운송에 따른 서비스도 좋아져 전남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맺을 경우 20㎏ 포당 운송비는 대략 3천100원. 그러나 이번 연합운송계약으로 포당 운송비는 2천400원까지 낮아지게 됐다. 농산물 가격 구조 왜곡의 주범인 운송비를 현행보다 22%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올해만 약 29억원의 쌀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통조직들의 규모가 영세한 데다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물류 시스템 구축과 물량 확보가 손쉬운 쌀을 대상으로 연합물류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선 농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설명회, 워크숍 등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참여 RPC 31개소와 함께 CJ GLS(주)를 물류 대행회사로 확정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31개 RPC는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쌀 운송 물류를 공동으로 시행하되 CJ GLS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CJ GLS는 오는 11월부터 연합물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연합물류 체계가 도입되면 RPC 경영혁신은 물론 운송비 절감 등으로 연간 29억 원의 수입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에 24개 민간RPC를 참여시켜 쌀 연합물류 체계를 완성하고, 하반기에는 과일·채소류 등의 품목에도 연합물류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1도크 가동 대한조선의 600t급 골리앗크레인이 위용을 드러냈다. 대주그룹 계열 대한조선은 21일 해남조선소(해남군 화원면)에서 제 1도크 준공과 함께 노르웨이로부터 수주한 17만500t급 벌크선 HN1001호 용골거치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1도크는 345m(가로)×72m(세로)×10m(높이) 규모로 지어졌다. ▶관련기사 8면 /해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범여 '55일 경선레이스' 돌입

민주신당 오늘까지·민주당 27~28일 대선후보 등록

17대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 이어 범여권도 21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과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후보 경선레이스에 돌입했다.

20일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도 당 노선의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하고 나서 한나라당 대 범여권 대선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중앙선관위에 열린우리당과 합당신고서를 제출,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의 후보등록과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민주신당은 22일까지 이틀간의 경선 후보 등록에 이어 23~24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연 뒤 오는 27일 인터넷 토론회와 31일 TV 토론회를 거쳐 내달 3~5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15일부터 제주·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10차례에 걸쳐 본경선 투표를 실시한 뒤 10월14일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신당은 또 이날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착수, 26일까지 접수된 인원 가운데 선거인단 1만명(일반국민 7천명＋열린우리당과의 통합에 따른 승계당원 3천명)과 일반인 2천400명 등 1만2천400명을 추려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본경선에 오를 후보를 가려낸다. 본경선에 오를 후보 숫자는 예비경선 등록 후보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8일께 대선후보를 확정키로 하고, 오는 27~28일 경선후보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후보 사전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를 탈락시킨 뒤 10월7일 전국 시·군·구 단위 투표소에서 당원 및 국민공모 선거인단 경선을 실시하고 다음날인 10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뒤 동시개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이처럼 범여권이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양대리그로 대선후보 경선을 치름에 따라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 사이 후보 단일화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❷음식·숙박업 시민정신 절실

'잇속' 접고 '감동'을 팔자

체육인 C(52)씨는 몇 년 전 전국체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불쾌하다고 회고한다. 체전을 주최하는 도시에서 평소 4만~5만원하던 숙박료를 5만~6만원으로 올려 바가지를 씌우는가 하면, 식당들도 "물가가 비싸다"며 '체전 특수'를 노리려 했다는 것.

L(46)씨도 얼마 전 축구대회 때문에 찾았던 어느 도시의 식당을 잊을 수 없다. 명색이 자치단체장이 소개해 준 '맛집'이라는 곳에 파리가 들끓고, 서비스도 형편없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이다.

오는 10월 8일에 광주에서 열릴 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음식·숙박업소의 서비스도 성공 체전을 위한 절대 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3만여 명의 선수단과 10만명의 관람객들이 일주일(10월8일~14일)간 머물면서 먹고, 자는 것이 광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도시들처럼 시민들의 비협조로 오히려 나쁜 인상만 주는 헛고생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숙박업소 등은 벌써 돈벌이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투숙객에 따른 객실 부족 ▲권장 숙박 요금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선수단에 객실 제공을 기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경기장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지정된 시·도가 아닌 곳으로부터 웃돈을 받고 숙소를 제공키로 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 참가자들을 그냥 스쳐가는 '뜨내기'가 아닌 '단골'로 모시는 시민정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의 숙소와 정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다시 광주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광주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노하우 축적으로 수출증대와 도시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시민의 정주 여건 강화,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승희 광주시 사회복지국장은 "눈 앞의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이 넘치는 질서정연한 쾌적한 도시라는 인상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